



본 보고서는 COVID-19 팬데믹이 뉴욕에 사는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n=1,270)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뉴욕시 COVID-19 지역사회 보건 자원 및 요구 평가(NYC COVID-19 CHRNA)의 결과를 제시합니다. 보고서에서는 COVID-19 백신 접종, 식품에 대한 접근, 언어 접근, 경제적 영향, 주택, 공공 혜택접근, 의료와 의료 시설 접근, 반아시아인증오 및 차별, 지역사회 기반 조직들(CBOs)의 지원을 포함한 주요 영역을 강조합니다.

NYC COVID-19 CHRNA는 설문조사 참가자의 54%가 아시아 언어로 설문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NYC 인구 기반 설문조사 및 요구 평가와 차별화됩니다. 이는 COVID-19 팬데믹 동안 뉴욕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주로 영어, 스페인어, 간혹 중국어로 시행된 것과 대조됩니다. 이런 언어들로만 실시된 설문조사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더 나은 사회적, 건강상 위치에 속해 있는 높은 교육과 소득 수준을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 뉴욕 주민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욕시의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자료가 영어로만 수집된다면 그들의 사회적 요구는 알아낼 수 없을 것 입니다.

COVID-19 팬데믹 동안 뉴욕시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COVID-19 백신 접종은 수용도가 높지만, COVID-19 백신 접근성은 여전히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팬데믹 동안 도움이 필요한 사람(77%) 중 식량 확보가 1 순위로 꼽혔고(51%) 주택(26%)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거의 4명 중 1명(27%)은 팬데믹 동안 그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제때 정확한 정보에 정기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 3명 중 1명 이상이 소득 감소(39%)와 출근에 대한 걱정(39%)을, 3명 중 1명은 실직/일자리 상실(33%)을 보고하여 경제적 타격이 극명함을 보여줬습니다.
- 응답자의 절반(49%)은 팬데믹 동안 일상생활 전반에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개인 중 절반 이상(56%)이 다음 달 임대료나 모기지 납부를 걱정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거의 4명 중 1명(23%)은 임대료나 모기지론이 연체되었다고 보고했고, 5명 중 1명(19%)은 가정 내 다툼이나 폭력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 총 68%가 실업, 메디케이드, COVID-19 긴급 자금 등 연방 또는 주 정부 혜택을 신청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32% 중 6%는 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답했고, 16%는 이러한 혜택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 대다수(60%)는 COVID-19 팬데믹이 그들의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진료실에서 COVID-19에 걸릴 것을 우려해 (55%) 예약 후 방문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 3명 중 1명 이상이 자녀가 학교에 있거나 원격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35%).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원격 학습 문제는 가족으로 인해 집중/공부하기 힘들거나 공부할 공간이 부족하거나(58%), 고속 인터넷 접속 부족(28%) 이었습니다.

- 거의 3명 중 1명(32%)이 차별에 직면했다는 보고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더욱 널리 퍼진 것은 이런 지역사회 내 경계심과 두려움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78%는 COVID-19 팬데믹과 관련된 인종 차별이나 차별 때문에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보고하였고, 80%는 COVID-19와 관련된 잠재적인 인종 차별 또는 차별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활동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화된 활동으로 61%는 야외에서 혼자 걷거나, 외부 신체 활동을 피하고, 51%는 대중교통 이용을 피하고, 37%는 집을 떠나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피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부분(88%)은 미국이 COVID-19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국 내 인종/민족 집단의 사람들에게 신체적으로 더 위험 해졌다고 믿었습니다.
- 대다수(74%)는 COVID-19 팬데믹 동안 지역사회 기반 조직들 (CBO)이 자신이나 가족을 도왔다고 보고했습니다. CBO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정보 및 자원(52%), 식사 배달(41%), 혜택 및 프로그램 신청 지원(26%)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인 COVID-19 팬데믹 대응 및 구호 노력으로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승인과 공평한 지원 및 자원이 요구됩니다. 아래, 뉴욕시 특정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파트너 기관들은 지역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원이 선호하는 언어로 시기적절한 COVID-19 예방 및 백신 접종 정보, 지역 사회 내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연결해 주는 언어/통역 서비스와 공공 혜택 및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식량 지원 자원을 신속하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COVID-19 비상 대응 노력에 있어 지역, 주, 국가 지도자들에 의해 대부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해석참고: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 표본(n=1,270)과 통계적으로 충분히 큰 표본 크기를 가진 아시아 민족 그룹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우리가 보고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진 아시아 인종 그룹은 중국인 (n=742), 한국인 (n=105), 일본인 (n=188), 방글라데시아인 (n=74), 네팔인 (n=98), 기타 아시아인 (n=65)을 포함합니다. 기타 아시아인으로 아시아계 인도인, 캄보디아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말레이시아인, 오키나와인, 파키스탄인, 싱가포르인, 스리랑카인, 대만인, 베트남인,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남아시아인으로 스스로를 식별한 개인이 포함됩니다.



뉴욕시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 권장 사항

1. 아시아계 미국인 하위 인구, 특히 이 설문 조사 당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집단(예: 방글라데시인과 네팔인) 사이의 COVID-19 지원, 백신과 부스터 샷 접종을 우선시한다.
2. 식량, 주택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OVID-19 구호 및 복구 자금을 다른 지원 서비스와 결합한다.
3. 아시아계 미국인을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고 확대하기 위한 더 많은 자금과 자원을 제공한다. 정신 건강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아시아계 미국인 노인과 다른 하위 인구를 대상으로 문화적으로 적절한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 지원한다. 또한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 교육을 제공한다.
4. 반아시아인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공공 메시지 캠페인, K-12 및 대학내 인종차별 반대 교육 노력, 방관자 개입 교육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과 자원을 확대한다.

장기적인 권장 사항

5. COVID-19 검사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언어 지원 제공을 위한 CBO 내 기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 확보, 공공 혜택을 위한 등록 탐색 확장, 증오 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문화적으로 적절한 법률 및 정신 건강 자원 제공 및 해당 언어로 된 설문조사 자료 수집을 지원한다. 아래 설명된 특정 언어 지원을 요청한다. (예: 한국계 미국인을 위한 서면 번역)
6.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에 대한 자료가 학문적으로나 민중의 노력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에 더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 기관의 기초 자료 수집 노력을 개선한다.
7. 각 인종별 그룹과 선호하는 언어별로 세분된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